

# SSCP, 2010년 매출목표 5000억원

디스플레이 소재 매출비중 확대 ... 10월 5-7일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

코스닥 상장을 앞둔 정보기술(IT)소재 개발기업인 SSCP가 현재 1000억원대 수준인 매출액이 2010년에는 5000억원까지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오정현 SSCP 사장은 9월22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스플레이와 디지털가전, 자동차용 전자제품 등 IT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10년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5000억원,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0월19일 코스닥상장을 앞둔 SSCP는 IT제품에 쓰이는 소재를 개발하고 제품 디자인을 고안해 제조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2003년과 2004년 매출액은 730억원, 939억원으로 꾸준히 외형을 늘려 왔다.

2005년 상반기에는 매출액 543억원, 영업이익 96억원을 기록했으며 200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267억원, 225억원을 전망하고 있다.

오정현 사장은 “2002년 이후 새로운 소재 개발과 디자인 연구를 위해 600억원을 투자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소재 개발과 디자인 고안,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SCP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기업에서 IT제품 관련 디자인 고안과 소재 개발을 주문 받아 시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2005년 상반기 매출액 비중은 디지털가전 49.5%, 모바일제품 12.5%, 자동차용 IT제품 25.1%, 디스플레이 소재 12.9%로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는 디스플레이 소재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SCP 주식(액면가 500원)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공모에 나서며 공모 예정가는 6000-8000원이다.

<화학저널 2005/09/26>